제례의 절차와 의미

존재의 근원에 대한 사랑과 추억

가제(家祭)의 종류

- 상중제의(喪中祭儀)
- 사시제(四時祭)
- 기제(忌祭)
- 묘제(墓祭)
- 절사(節祀)

기제(忌祭)

1. 재계(齊戒)

- 제사 하루 전 날 재계한다.
- 기일 하루 전 날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현재의 풍속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.
- 기제는 돌아가신 날 해 뜨는 즈음에 행한다. 음양의 조화, 생사자의 만남.

2. 진설(進設)

- 기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술과 음식을 차린다.
- 음식은 집안의 형편에 걸맞게 하되, 효도와 공경을 다하며, 사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.

3. 봉주취위 (奉主就位)

- 신주(神主)를 받들어 해당 자리에 놓는다.
- 지방(紙牓)으로 행사하는 경우, 이때 지방을 자리에 둔다.
- 신주, 위패, 지방.

4. 강신(降神)

- 주인이 행한다.
- 향을 피운다.
- 잔에 술을 따라 모사(茅沙) 위에 세 번 제(祭)한다.
- 재배(再拜)한다.

5. 참신(參神)

- 주인 이하 차례로 선다.
- 재배(再拜)한다.

6. 진찬(進饌)

- 어육(魚肉)과 반갱(飯羹)을 **주인과 주부가** 올린다.
- 밥 뚜껑을 연다. (제사상을 치울 때까지 다시 닫지 않는다.)
- 좌반우갱(左飯友羹)의 문제.

7. 초헌(初獻)

- 주인이 한다.
-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린다.
- 다시 술잔을 잡아 모사에 제한 후 원래 자리에 둔다.
- 적간(炙肝)을 올린다.
- 축문(祝文)을 읽는다.
- 주인은 재배한다.
- 술과 적간을 치우고 잔은 원래 자리에 둔다.

8. 아헌(亞獻)

- 주부가 한다.
-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린다.
- 적육(炙肉)을 올린다.
- 재배한다.
- 술과 고기를 치우고 잔은 원래 자리에 둔다.

9. 종헌(終獻)

- 형제 중에 연장자나 장남, 혹은 가까운 빈(賓)이 한다.
-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린다.
- 적육(炙肉)을 올린다.
- 재배한다.
- 술과 고기를 치우고 잔은 원래 자리에 둔다.

10. 유식(侑食)

- 주인은 술잔에 술을 채운다.
- 주부는 숟가락을 밥 가운데 꽂되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하며, 젓가락을 고른다.
- 모두 재배한다.

11. 합문(闔門)

- 문을 닫는다.
- 주인 이하는 모두 밖에 있고, 존장은 다른 곳에서 조금 쉰다.

12. 계문(啓門)

- (축이) 세 번 기침을 하고 문을 연다.
- 주인 이하 모두 들어간다.
- 갱(羹)을 치우고 탕수(湯水)를 올려 밥을 세 번 떠 넣고 숟가락을 담근다.

13. 사신(辭神)
14. 납주(納主)
15. 철상(徹床)
16. 준(餕)

- 주인 이하 모두 재배한다.
- 신주를 사당에 되돌려 놓는다.(지방이면 태운다.
- 축문을 태운다.
- 제사상을 치운다.
- 제사 음식을 싸서 친우에게 돌린다.
-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.